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6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본격 착수

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짜기 위해 '2026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내버스 이용 현황과 승차차 수요, 노선별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선 운영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나아가 수익이 나지 않거나 외진 곳을 달리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르는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한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조사원들이 주요 노선 버스에 직접 탑승한다. 이들은 시간대 별 승차차 인원과 이용 형태, 혼잡도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거쳐 이용객 수요에 맞는 노선 조정,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개선, 교통 취약 지역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후 택시 교체 지원 45대 추가 모집

정읍시가 낡은 택시를 새 차로 바꾸는 '2026년 택시 대체차 지원사업' 1차 대상자 31명을 확정하고 남은 물량 45대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관내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체차 지원 신청을 받았다. 올해 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총 76대로 세 부적으로는 개인택시 51대, 법인택시 25대가 배정됐다. 이 기간에 모두 32건의 신청서가 들어왔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조건을 심사한 결과 총 31대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업종별로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21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대는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외됐다.

추가 모집과 관련한 신청 자격이나 필요한 서류는 정읍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민에게 30만원씩 지급”

##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공약 발표 추석 이전에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경제 회복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가 “올 추석 전에 고창군민 1인당 30만원씩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7일 전격 발표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창지역 농·어업은 물론, 민생경제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진 데 따른 심덕섭표 긴급 경기부양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저는 고창군수 재선에 당선된다면 군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긴급추경을 편성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고창군민에게 올 추석이전 활력지원금 3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덕섭 후보의 군민활력지원금은 유가 상승과 이른 폭염 등으로 피해가 큰 군민을 두텁게 지원하게 된다. 긴급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활용 등 다른 사업에 피해를 주진 않는다.

또한, 지원금을 지역화폐(고창사랑카드 등)로 지급해 지역에서 사용한 돈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지난 해 추석 전군민에게 ‘활력지원금 20

만원씩’을 지급하면서 민생 회복의 희망 불씨를 꺼지지 않는 거대한 햇불로 키워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소상공인 1억 무이자 대출과 지역상품권 1,000억 발행지원’, ‘골목형 삼겹살 지정추진·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을 약속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군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저 심덕섭이 반드시 해내겠다”며 “짧고 유능한 경제일꾼! 이재명과 함께 중단없는 고창발전을 위해 한번 더! 심덕섭을 꼭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골프장 논란 “선택적 행정 사실 아냐”

## 고창CC 골프장 부지 증설 논란 반박... 군계획 시설 부지 이유로 증설 불가 안내

## 고창 종합테마파크 골프장은 공공성·행정 일관성에 따라 절차대로 행정 집행 중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고창군의 ‘선택적 행정’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고창군이 입장을 밝혔다.

고창CC 측이 골프장 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는 고창군이 2019년 12월 ‘군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 고시된 부지로 고시 전부터 고창CC측은 상대로 사업계획과 매입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던 곳이다.

고창CC 역시 이러한 고창군의 공공사업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창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며, 매입 이후에도 골프장 증설 계획에 대해 고창군과 정식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고창CC는 오랜 기간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작년(2025년 8월)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고창군에 공문을 통해 골프장 증설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고창군은 해당 부지가 이미 군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되어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를 계획 중인 핵심 사업 부지이므로, 골프장 증설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공익적 목적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처분이다.

대기업 특혜 및 편향 행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나오픈측에서 추진 예정인 골프장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조성계획을 고창군에 제출하여 현재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안이다. 외부 자본과 지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정식 계획과 부지의 용도,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혜택은 없으며, 모든 행정 처분은 군민 전체의 이익과 법적 원칙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속도’... 벌목작업 공정 본격화

## 부안영상테마파크, 소음·통신장애 대비 6월 1일~12일 임시 휴관

부안군은 착공 초기 실시한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데 이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총 12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사업

이다. 지난 26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정비 과정에서 벌목작업이 시작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벌목작업과 이동통신 중계기 이설이 병행되면서 일시적인 소음

발생과 통신장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안영상테마파크는 이용객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현수막 게시와 부안군청 홈페이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휴관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민원 담당 공무원 마음치유 나서

## 힐링 프로그램 통해 심리 회복·재충전 지원

부안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졸빛 노을빛 정원 및 군산 일원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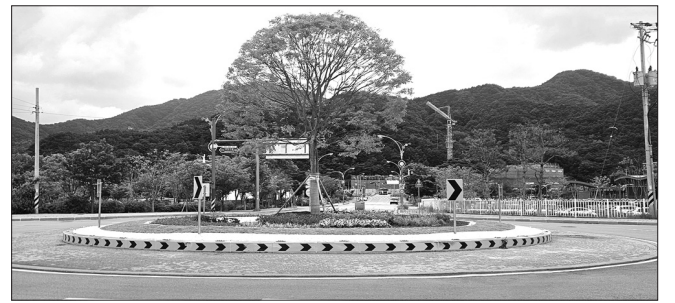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민원 최일선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에 노출되기 쉬운 민원담당자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프로그램 중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민원담당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정 권한대행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민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깊은 공감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은 코칭학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관계를 살리는 친절과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한 소통 특강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 지역 문화체험 탐방을 비롯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다채로운 치유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내장·신월 회전교차로에 단풍나무 녹지 조성

정읍시 산림녹지과가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김복인 내장 회전교차로와 신월 회전교차로 일대에 녹지 공간 조성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선보인다.

시는 내장 회전교차로와 신월 회전교차로 중심에 시목인 단풍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다. 그 주변으로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조화롭게 배치해 계절감을 살린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녹지 공간을 꾸렸다.

내장 회전교차로는 기적의 놀이터, 천사하어로즈, 달하루, 문화광장 등 지역 주요 관광지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시는 이곳에 토끼와 달 조형물을 덧붙여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했다.

신월 회전교차로 역시 한국가요촌 달하, 내장산자연휴양림, 내장산컨트리클럽(CC)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자

리하고 있다. 시는 이번 녹지 조성으로 도심 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잦았던 롯데마트부터 정읍 나들목(IC) 구간 중앙분리대에도 홍가시와 황금사철을 심어 사막했던 도심 진입 구간의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황금사철은 야간 시간대 운전자의 시야를 밝혀주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꾸준한 물주기와 풀 뽑기 등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로 경관이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정성껏 돌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